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 가로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로수 관리 및 시민 관심 참여 사례

2021.11.25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김태연
숲해설가, 숲환경학교(주) 대표, 안양가로수네트워크

도시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도시 경관 -> 도시의 품격 상승, 도시 가치 상승





도시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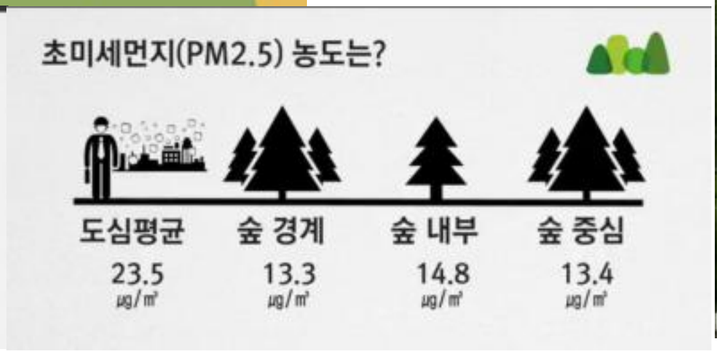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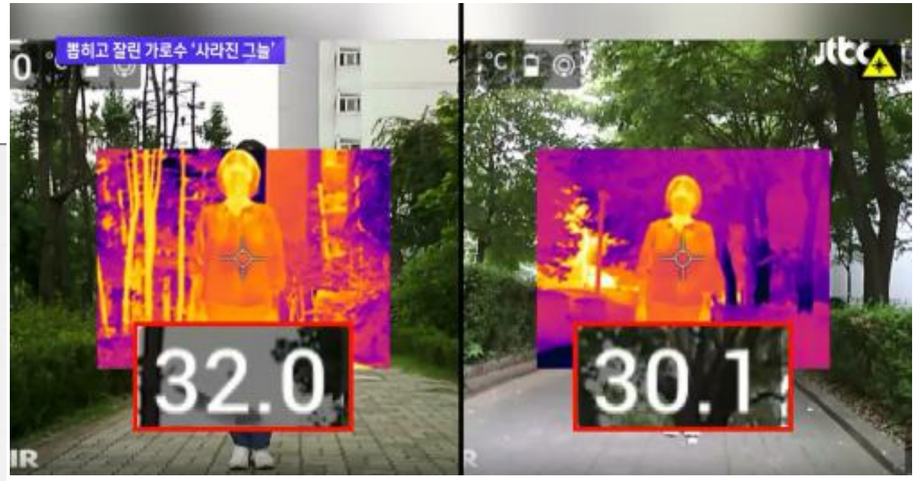


미세먼지

도시 열섬







도시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늘, 경관,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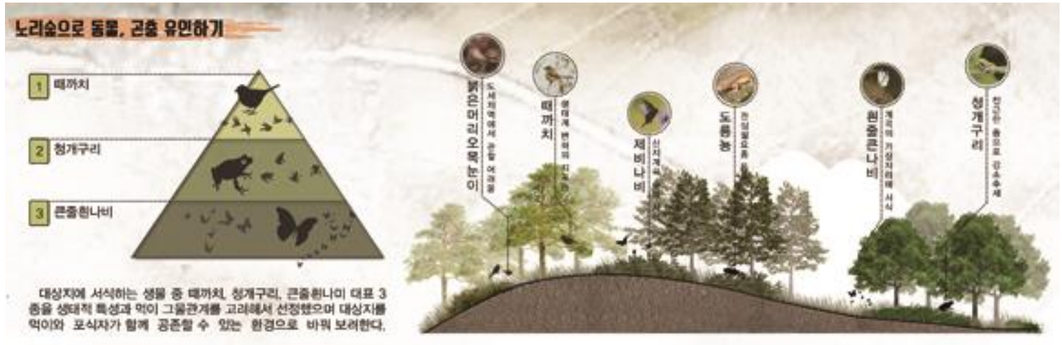


도시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분리 / 연결





도시숲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나뭇잎이 있나.

없나.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살아도 사는게 아닌 나생. 한번에 죽지 않아.....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수형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은행나무 수난기

열매 문제 -> 가지치기 -> 농약 -> 수간주사 -> 혐오표시

도시 상징 나무, 지구의 역사 특별한 나무, 미세먼지, 색깔, 낭만, 15~20일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건설폐기물 위에 흙을 얇게 붓고 마운딩 후 나무를 심는다.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는 PH10~13의 강알칼리로
토양을 건강하게 해주는 생명들이 살 수 없다.



뿌리, 딱딱한 흙, 경계석, 유공관, 건설폐기물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끈, 보호대, 지지대, 데크, 우레탄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수피 벗겨짐, 동공, 가지치기 위치, 우레탄





나무의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자

닭발 전지





귀신머리, 마녀손톱

도시 곳곳이 문제다

가로수



나무도 울고, 시인도 울었다…대구시 '무지막지' 가지치기

November 22, 2021 이동순 사회·문화, 칼럼



'나무야 미안해' 대구시 동구 불로동 도로 중앙 '무지막지' 가지치기 현장

도시 곳곳이 문제다

대규모 도시개발







도시 곳곳이 문제다

디자인 전지





도시 곳곳이 문제다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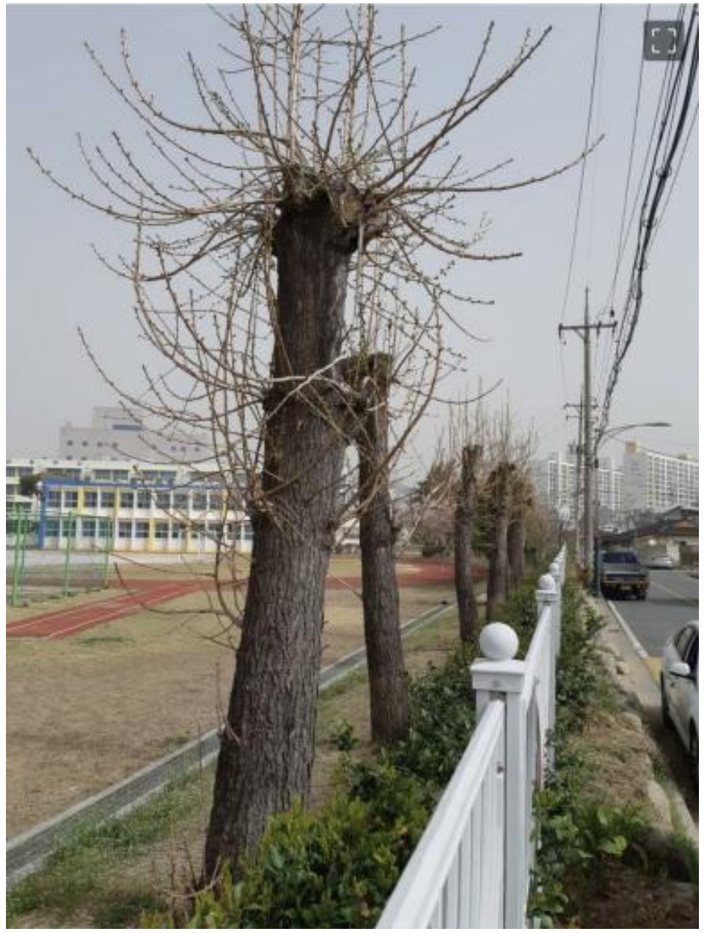






도시 곳곳이 문제다

학교











학교

도시 곳곳이 문제다

신기초

(우범지대)

무지

주민의

아련한

기억...





도시 곳곳이 문제다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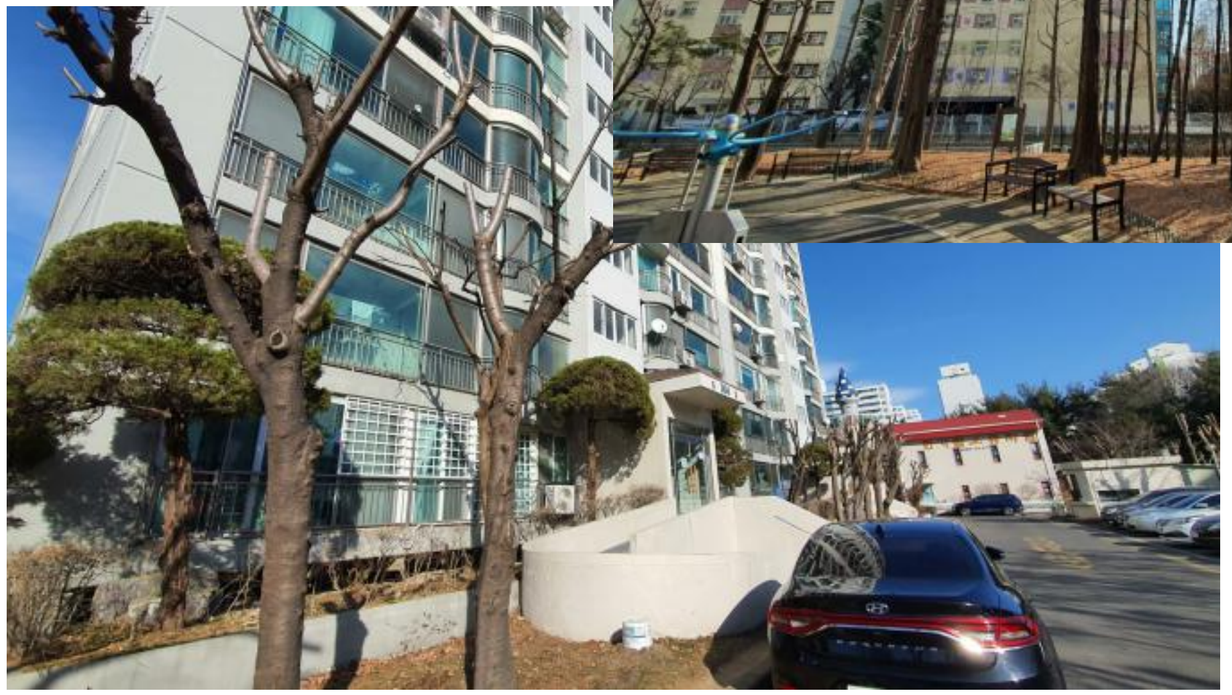


도시 곳곳이 문제다



아파트





도시 곳곳이 문제다







상가, 건축 기준

관리 기준무

간판때문?

과잉충성?

시장 공약(옥상 녹화)

도시 곳곳이 문제다

공원







도시 곳곳이 문제다

공원







도시 곳곳이 문제다

보호수, 종교시설













왜 이렇게 했을까?

전선

안전

시끄러워

가지,
잎낙하

무자격자

간판,
안내판

어두워

과잉충성

열매

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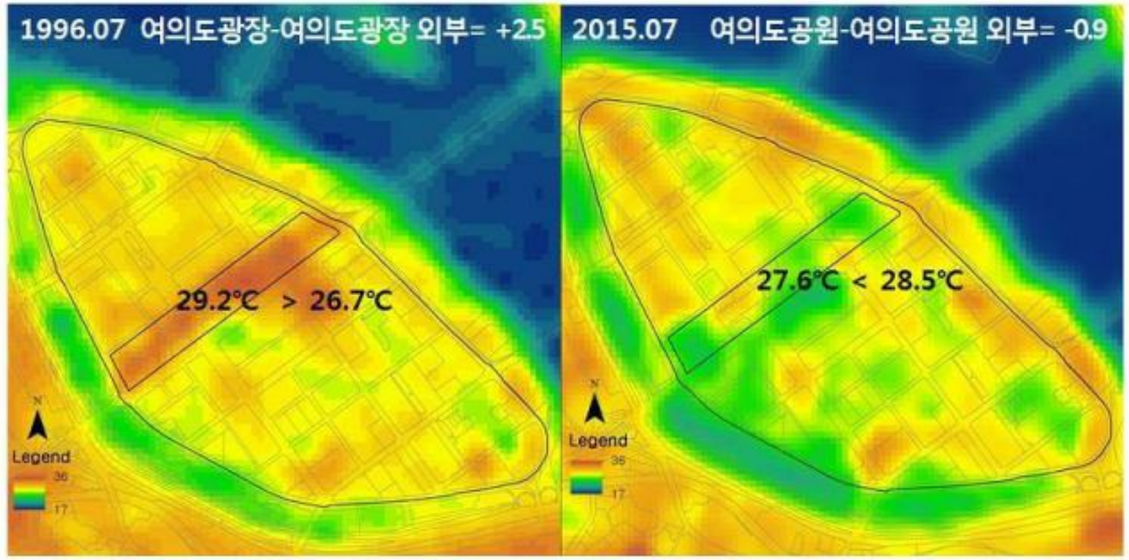
이기심

키커서

생명경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가로수 전복 사고

미세먼지 마스크

도시 열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경관 훼손

아이들 정서

생태계 단절

예산낭비

싹둑 잘린 나무를 당연시하는 우리 내면의 황폐함



나무 자르기의 일상화는 생명감수성 상실

4년만에 가로수 교체 '예산이 아깝다'

지역풍토 고려치 않아 고사...제주시, 다른 수종으로 전부 교체

김영하 기자 기자 yhkim9356@naver.com | 등록 2008.01.18 16:44:54



지난 2006년 2월 구좌읍사무소 앞 도로에 해수피해를 막기위해 검은 차광막으로 가로수를 덮은 모습

© 이슈제주DB

도시숲,
도시나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가로수 민관 공동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가로수 화단 가꾸기, 가로수 아트브랜딩, 가로수 안내판 달기, 가로수 전정체험,

가로수 보호캠페인, 가로수 겨울옷 입히기 등 가로수 돌봄 활동 및 시민계몽 활동 수행

*출처: 수원시 가로수정원사(수원그린트러스트)

73

보호수,

문화 만들기 / 잠복소 문제



안양시 간담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도토리에서 숲으로~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의왕시 시민 100명

지구의날 행사

->노을공원시민모임)

도시 씨앗 모아 키우기

도시 모종 옮기기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삶





최종 답변 내용

답변일

2020-06-30 13:40:09

처리결과(답변내용)

○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006-0663922)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악산 수도군단 입구 계곡(비산동 853번지)은 실개천으로 학의천으로 연결되는 수로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강우 시 짧은 시간 내 수위 변동 폭이 크므로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대비하기 위하여 부러지거나 뽑힐 경우 재해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해 전지 및 제거 작업을 실시한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많은 이해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 안유정 주무관(☎031-8045-458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내용

답변일

2020-04-27 13:54:2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양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제안하신 민원(1AA-2004-0520594)은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작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3. 우리구에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수형 향상, 재해예방을 위해 매년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평촌대로 중앙분리대 및 달안로 구간은 2019년 태풍 "링링" 내습 시 수목이 전도되고 가지가 부러지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금년도에 수형조절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향후 가로수 전지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안전과 미관 등을 고려한 가로수 전지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산림녹지팀 박새하 주무관(☎031-8045-451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사활동, 모니터링

기록 남기기

민원, 소송, 시위



한겨레

무자비한 가로수 가지치기 "그냥 뽑아라" 뿔난 시민들

해마다 늦겨울에서 봄 사이 이뤄지는 가로수 가지치기가 '나무를 죽인다'며 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은 2020년 "3월[입]부터 5월 말까지 '과도한 가지치기와 벌목' 시민 제보를 받고 있는데, 2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보 1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 접수된 사진 속에는 모든 가지를 다 베어버려 황량하기 짝이 없는 가로수 모습들이 담겼다.

경기 안양 평촌의 빌딩만 남은 가로수들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그냥 뽑아라. … 이거 보는 우리 가슴이 미어진다. (중략)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아들이 어린 가슴을 가질까…"라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 테크노파크 앞 공개공지에 목



대전 중구 테크노파크 앞 가로수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한겨레 PICK

'벌목 수준' 가지 없는 가로수,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입력 2021.02.28. 오후 5:29 · 수정 2021.03.01. 오전 2:35

김양진 기자 ›

369 136

거의 모든 가지 잘라내는 방식의 가지치기
굵은 가지 줄어들면 녹음 면적도 줄어들어
절단면 세균 침투해 썩으면 전복될 위험도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 제거 25% 제한
한국은 가지치기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민단체 제보창구 개설에 100여건 제보

한겨레 PICK

90살 향나무 제멋대로 벤 대전…53살 양버즘 살리기로 한 서울

입력 2021.02.18. 오후 8:05 · 수정 2021.02.18. 오후 10:17

327 154

옛 충남도청 담장 172그루 훼손 확인
청사 세울 때 조성된 근대문화유산
소유권자 충남도, 원상복구 요청

서울은 덕수궁 길 20그루 벌목 철회
"문화 경관적 가치" 시민 목소리 반영







18 환경

'닭발 가로수'에서 '함께 사는 나무'로

"가로수 살리며 마을 공동체까지 회복"







지난 2019년, 고양시에서는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무관리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사랑'의 입장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 같은 기후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명체, 가로수. 가로수는 도시를 아름답게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하고, 도로의 소음을 줄여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 시켜주고, 도시 개발로 삶 공간을 잃어버린 야생조류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가로수 뿐 아니라 도시의 모든 나무들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심었다, 잘랐다. 우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왜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 일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다.

서울신문 구독 PICK

"은행나무에 암나무 표식(♀)은 여성혐오 정책, 중단하라"

입력 2020.06.01. 오후 12:51 · 수정 2020.06.01. 오후 2:01

남상인 기자 ›

413 462

[서울신문]
시민단체, 안양시 성별표시 정책 반발
"악취나는 암나무 인식으로 낙인찍기
조기 낙과 유도하는 주사도 중단해야"



서울신문 구독 PICK

님아 그 木, 숨을 거두지 마오

입력 2021.04.02. 오전 5:08 · 수정 2021.04.02. 오전 9:52

정연호 기자 ›

33 13

[포토다큐] 식목일 앞두고 가로수 '가지치기' 수난



볼품없이 잘려져 나간 이 가로수는 보행자들에게 '닭발'가로수로 불리고 있었다.

겨우내 움츠렸던 땅 위 생물들이 기지개를 펴는 4월은 식목일도 끼어 있다. 이맘때면 지자체와 기업들, 시민들은 서로 나무를 심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이 식목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품위를 훼손하고
나무의 수명을 단축하고 태풍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나뭇가지의 25% 이상을 제거하면 치명적이다.
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culture



「건강한 나무는 우리 사회의 자산」







TOPPING
HURTS TREES!

NEVADA SHADE TREE COUNCIL
UNIVERSITY OF NEVADA RENO
NEVADA DIVISION OF FORESTRY

THANK YOU

감사합니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김태연
숲해설가, 숲환경학교(주) 대표, 안양가로수네트워크

2021.11.25